

최근 10년간 초등생 천식 유병율은 3.3%, 아토피 유병율은 12.5% 증가
아토피 공공클리닉 설치를 통해 환경성 질환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0. 04. 15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아토피나 천식 등의 환경성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아동의 아토피 환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10년간 초등생 천식 유병율은 3.3%, 아토피 유병율은 12.5% 증가 환경성 질환은 그 원인을 명확히 찾을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아토피 등과 같은 질환은 아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회적 문제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의 정책과 대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및 공공 클리닉 등의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은 단편적인 치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는 물론 먹는 것과 생활공간의 유해화학물질, 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도의 노력과 정책의 수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다.

진보신당은 지자체 차원에서 보건소와 연계한 아토피 공공 클리닉을 설치하고 아토피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역사회가 환경성 질환을 공동의 관심과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산학협동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치료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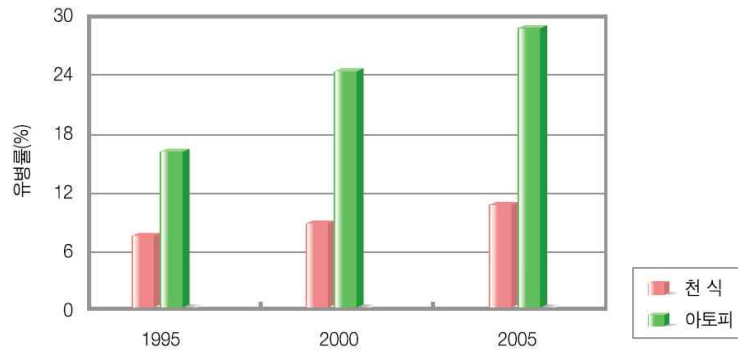
환경/생태 정책공약 브리핑 7. [행복한 녹색 혁명] - 안심 도시 ② 아토피 없는 동네

1. 현황 및 문제점.

(1) 점차 늘어나는 아토피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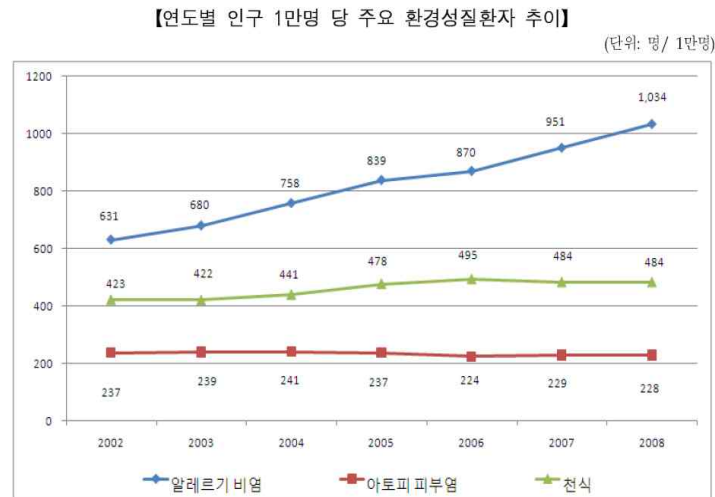
-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필요

<표 1. 초등학교생 천식 및 아토피 유병율, 환경부 통계(대한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 역학조사)>



- 최근 10년간 초등생 천식 유병율은 3.3%(95년 7.7%→05년 11.0%), 아토피 유병율은 12.5% (95년 16.6%→05년 29.1%) 증가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2008년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국민건강보험)에 의하면

<표 2. 서울시 환경성 질환 유병율 통계 (08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 아토피 환자는 단순한 질병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며, 복수의 증상을 가지고 다른 질환의 고위험 그룹이 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공공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
- 2008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에서 서울시 천식 및 아토피 환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환경/생태 정책공약 브리핑 7. [행복한 녹색 혁명] - 안심 도시 ② 아토피 없는 동네

사결과, 아토피 환자의 1/3은 주 1회 학교를 조퇴, 1/3은 주 1회 학교를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토피 및 천식환자의 보호자는 각각 1/3씩 주 1회 이상 직장에서 조퇴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아토피 환자의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직장에 결근.

- 특히 아이들은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함. △ 면역력이 발달하지 않아 환경유해물질에 해독하는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고, △ 영유아의 경우 입에 넣고 빠는 경우가 많아 오염에 취약하며, △ 아이들은 신체구조상 성인보다 공기흡입량이 23배이며 물도 3배를 더 섭취, 또한 체중 당 음식 섭취량도 성인보다 2~3배 많음. 따라서 아이들은 피부와 소화관, 폐를 통해 흡수하는 유해물질의 양도 어른보다 많음.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국내 7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중 약 20.2%가 미세먼지 초과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15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초과 지역에 사는 아동 비율을 산출하면 국내 대기기준으로는 18.2%가량이고, 미국기준으로는 85.6%, 영국기준으로는 98.6%가 대기오염 초과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8년 환경정의가 서울시내 초등학교 대기오염 노출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는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는 학교가 82%인 것으로 조사.

<표 3. 서울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유병율, 2008>

(단위 : 천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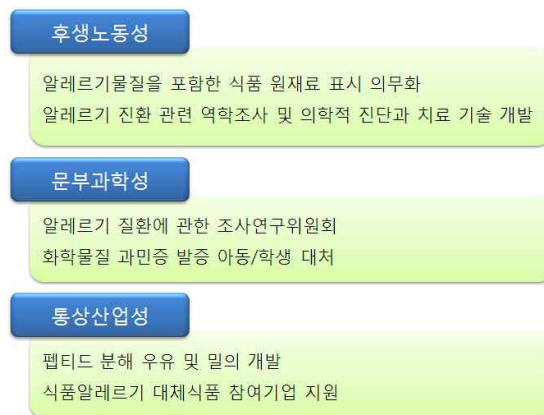
구분	알레르기 비염(J30)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J46)					
	진료실인원(천명)			인구1만명당(명)			진료실인원(천명)			인구1만명당(명)			진료실인원(천명)			인구1만명당(명)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서울시	924,374	416,786	507,588	901	817	984	237,957	111,342	126,615	232	218	246	424,448	193,378	231,070	414	379	448
강남구	50,957	23,714	27,243	864	824	902	13,088	6,027	7,071	222	209	234	18,134	8,569	9,565	307	298	317
강동구	50,226	22,685	27,541	1,054	949	1,160	11,637	5,540	6,097	244	232	257	21,374	9,567	11,807	449	400	497
강북구	25,793	11,276	14,517	792	692	891	6,310	3,096	3,214	194	186	201	14,381	6,404	7,977	441	393	490
강서구	53,230	23,754	29,476	923	832	1,012	12,809	6,080	6,729	222	213	231	27,485	12,180	15,315	477	427	535
관악구	50,270	22,575	27,695	951	843	1,062	11,390	5,442	5,948	216	203	228	18,421	8,541	9,880	349	319	379
광진구	31,423	13,967	17,456	828	743	913	8,504	3,973	4,531	224	211	237	12,770	5,731	7,039	337	305	368
구로구	38,788	17,690	21,098	905	818	992	9,915	4,731	5,184	231	219	244	16,513	7,666	8,847	385	355	416
금천구	16,712	7,474	9,238	686	600	777	4,713	2,163	2,550	194	174	214	10,058	4,563	5,495	413	366	462
노원구	62,820	28,582	34,238	1,031	952	1,107	14,406	6,843	7,563	236	228	245	29,021	13,273	15,748	476	442	509
도봉구	33,314	14,993	18,321	899	814	984	7,943	3,717	4,226	214	202	227	14,123	6,498	7,625	381	353	409
동대문구	32,103	14,345	17,758	896	792	1,002	8,151	3,947	4,204	227	218	237	14,705	6,525	8,179	410	360	461
동작구	35,788	16,014	19,774	890	806	972	8,862	4,177	4,685	220	210	230	15,023	6,882	8,141	374	346	400
마포구	32,737	14,521	18,216	836	756	913	9,206	4,313	4,893	235	225	245	16,448	7,516	8,932	420	391	448
서대문구	30,340	13,583	16,757	923	841	1,003	9,757	4,401	5,356	297	272	321	19,065	8,508	10,557	580	527	632
서초구	38,893	18,005	20,888	896	846	944	10,408	4,899	5,509	240	229	250	16,163	7,357	8,806	372	346	398
성동구	27,002	11,899	15,103	860	752	969	6,423	3,006	3,417	205	191	218	13,156	6,131	7,025	419	389	449
성북구	41,832	18,883	22,949	894	811	976	11,024	5,185	5,839	236	223	248	17,970	8,166	9,804	384	351	417
송파구	67,925	31,084	36,841	983	915	1,050	16,470	7,484	8,986	238	220	256	25,587	11,931	13,656	370	351	389
양천구	51,095	23,522	27,573	995	920	1,070	12,929	6,096	6,833	252	236	268	22,798	10,465	12,333	444	409	479
영등포구	35,931	16,262	19,669	852	766	939	9,839	4,673	5,165	234	220	248	21,273	9,785	11,488	504	461	548
용산구	20,657	9,489	11,178	858	798	916	4,719	2,176	2,543	196	183	208	8,159	3,870	4,289	339	325	351
은평구	37,648	16,408	21,240	843	742	943	12,735	5,803	6,932	285	262	307	21,180	9,528	11,652	474	431	517
종로구	13,433	6,202	7,231	785	724	845	3,718	1,717	2,001	217	200	234	7,056	3,204	3,852	412	374	450
중구	9,763	4,323	5,440	739	652	827	2,838	1,342	1,496	215	203	227	5,018	2,265	2,753	380	342	419
중랑구	35,684	15,596	20,088	858	746	972	10,142	4,661	5,481	244	223	265	18,557	8,252	10,305	446	395	499

환경/생태 정책공약 브리핑 7. [행복한 녹색 혁명] - 안심 도시 ② 아토피 없는 동네

- 이와 더불어 산단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주기적 역학조사와 대책이 절실한 상황. 특히 공공이 책임지는 환경성 질환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
-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탁상공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 단위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조사 감시 체계 및 관리 강화를 직접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차원의 의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어야 함.
-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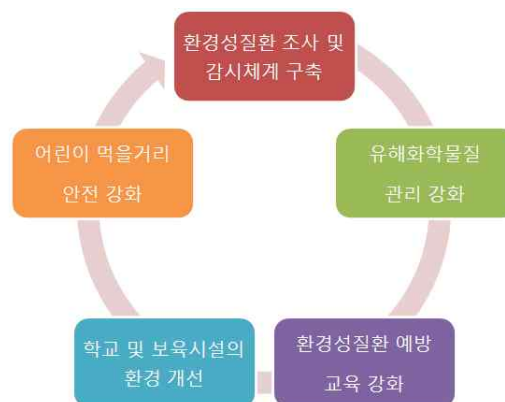
(2) 일본의 아토피 대처 사례

-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자체와 중앙 정부는 물론 부처간의 협동을 통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을 강구해 왔음



- 특히 부처간의 협동을 통해 연구 조사 및 정책수립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캠프도 진행.

2. 진보신당의 약속



환경/생태 정책공약 브리핑 7. [행복한 녹색 혁명] - 안심 도시 ② 아토피 없는 동네

- 아토피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학교차원에서 지역사회가 공동의 관심으로.
 - _ 진안의 사례 (아토피 시범학교로 조립초등학교를 지정하고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와 같이 아토피케어 전문인력을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지역의 대학과 연동하여 양성하도록 하고 아이와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토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자체가 지원.
 - _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내 및 실외 환경을 조성하고 전담 보건교사를 배치하며, 식이요법을 위한 영양교사 배치, 의료기관 지정 및 순회 전문의 배치, 친환경 농산물 급식 프로그램의 운영.
-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지역 차원의 역학조사
- 산단지역의 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철저한 역학 조사 실시
- 환경성 질환과 산단지역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예방체계 마련, 이를 위한 조례 제정
- 아토피 공공 클리닉 등의 설치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치료를 지원하고 정보를 교류